

# 영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에 대한 효과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 Analysis of the effect on self-esteem influencing factor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Dong-Kyu Moon  
Child Care Education of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효과성과 조절요인(연구대상, 연구 척도)에 따른 차이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선행된 학술지 26편을 CMA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개인심리정서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특성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교수효능감,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촉진 및 억제요인 효과크기는 촉진요인이 억제요인보다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개인심리정서특성과 조직특성 하위요인, 조절요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영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증진은 억제요인 보다 촉진 요인에 주목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심리정서특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되고, 직무특성 하위요인 가운데 교수효능감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factors that influence the self-esteem of early childhood teachers by considering their effectiveness and moderating factors (subject of study, research scale). We analyzed 26 Korean academic journals using the CMA2 program. The primary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a considerable overall effect size. The effect size of each factor group was in the sequential order of individu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Furthermore, we determined that the effect size of sub-factors of the job characteristics factor group was in the order of teaching efficacy, teacher-infant interaction,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promotions and inhibition factors revealed that promotions had a larger effect size than the inhibition fa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promotion of self-esteem should be focused on the promotion factors rather than the deterrent factors. Moreover, measures to enhance individu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improve teaching efficacy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are required.

**Keywords** : Self-esteem, Childcare Teacher, Kindergarten Teacher, Influencing Factors, Meta-Analysis

### 1. 서론

현대사회의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모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증가는 가정의 교육 기능 약화와 더불어 사회적 보육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기관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수와 이용 시간이 증가 되었고 이용 연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Moon(Sahm-yook Health Univ.)

email: moon3636@shu.ac.kr

Received July 6,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Revised August 2, 2023

Published September 30, 2023

명은 하향화되었다[1].

영유아가 기관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를 대신한 양육자로서의 영유아 교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 개인의 발달 수준 및 특수성에 적합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익혀야 하며 긍정적인 내면적 특성 또한 동시에 갖춰야 한다[2].

선행된 연구 가운데 자아존중감은 영유아 교사의 내면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3,4] 영유아 교사 자신은 물론 영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3,5]

자아존중감은 평가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주관적 평가로 보았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좋아하며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6]. Newman과 Newman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 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로 보았고[7], Gilmore는 개인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적 태도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하였다[8].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믿는 정도' 즉,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의미한다[9].

자아존중감 발달의 중요한 요인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관심과 존중 정도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다[10].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평가 시 일시적이며 구체적인 변화보다는 지속적인 개인의 자아 평가와 관련되어 있고 개인적 표준이나 가치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1].

자아존중감이 영유아 교사 개인과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결과,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3], 개인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자아존중감이 높은 영유아 교사는 효과적으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며[5,13], 영아기 애착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은 영유아에 대한 긍정적 지도 전략을 높이며 부정적 지도전략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이러한 점에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선행된 연구 가운데,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크게 보아 개인

심리정서특성, 조직특성, 직무특성으로 구분 가능하다 [16,17]. 먼저, 개인심리정서특성은 영유아 교사 개인의 심리나 정서 또는 성격과 관련된 요인으로 생활만족[18], 행복감[3], 회복탄력성[19], 심리적 안녕감[20], 그릿[21], 우울[22] 등이 보고되고 있다. 조직특성은 영유아 교사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특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몰입[23], 동료관계[22], 기관장리더십[23], 사회적 지지[24] 등이 살펴지고 있다. 또한 직무특성은 영유아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직무적 요인들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25], 교사효능감[14], 교수효능감[1], 직무만족[26], 심리적 소진[27], 직무스트레스[18]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각각의 연구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분석하므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 있어 동일한 요인이지만 서로 다른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요인에 대한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는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연구마다 연구대상 특성이 일정치 않으며 연구 척도도 상이 한 경우 있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인 메타분석(Meta-Analysis) 활용이 요구된다. 메타분석은 다년간 비슷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때, 이를 한 틀 안에서 종합하여 특정 연구 결과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화된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선행된 국내 학술지 연구 가운데,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을 수집하여 분석하므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객관적이며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전체효과크기 및 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군의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셋째,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은 조절요인인 연구대상 특성 및 연구 척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연구방법

### 2.1 자료수집

자료수집 절차는 자료 선정 절차(PRISMA flow chat)에 따라 문헌 발견, 문헌 선별, 선정기준 검토, 최종 분석

대상 순으로 진행하였다[28]. 먼저, 문헌 발견으로 200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학술지 연구를 대상으로 영아교사-자아존중감, '유아교사-자아존중감', '유치원교사-자아존중감', '보육교사-자아존중감'을 검색어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학술정보 등을 활용하였으며 579편이 검색되었다. 문헌 선별로는 자아존중감과 영향요인에 있어 상관관계 값(r)이 제시된 43편의 연구만 선별하였고 나머지 연구는 제외하였다. 선정기준 검토로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또는 영향요인 하위요인의 상관관계 값(r)만 제시하고 있는 18편의 연구는 통계적으로 효과크기 분석이 어려워 제외하였다. 따라서 Table 1과 같이 25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되었다.

## 2.2 자료분석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영향 관계를 갖는 요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인심리정서특성, 조직특성, 직무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영향요인의 조절요인은 연구대상 특성과 연구 척도로 구분하였다.

분석자료로 최종 선정된 25편의 연구에서 44개의 효과크기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딩하였다. 특성 분류 및 효과요인 코딩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 2인 및 연구자

가 각각의 연구물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불일치한 것은 3인이 합의 후 최종결정하여 코딩하였다.

자료 분석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를 활용하였으며 Fixed Model과 Random Model 선택은 동질성 검사와 이질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선택하였다[29]. 영향요인에 대한 효과크기 해석은 Cohen[30]이 제안한 표준화 상관계수 효과크기 기준(Small :  $ESr \leq .10$ , Medium :  $ESr = .30$ , Large :  $ESr \geq .50$ )을 활용하였으며, 출판오류 검증은 funnel plot 검사와 후속 검사인 Egger's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23].

## 3. 연구결과

### 3.1 출판오류 검증

분석자료에 대한 출판오류 검증으로 먼저, Funnel Plot 검사 결과 좌측과 우측에 있어 특별한 편향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속 검사인 Egger's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에서도(Table 2) Intercept가 2.767(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출간오류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Analyzed studies

First author, year	Variable factor	Case number	first author, year	Variable factor	Case number
Kwon, 2013[13]	Life satisfaction, Job stress	276	Jeon, 2016[4].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Self-esteem	594
Kim, 2019[17]	Depression, Collegiality	207	Chung, 2013[36]	Job satisfaction	217
Kim, 2021[20]	Teacher-infant interaction	231	Jung, 2016[37]	Happiness, Social-support	181
Kim, 2018[22]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520	Cho, 2005[38]	Job satisfaction	285
Kim, 2015[21]	Job satisfaction, Psychological burnout	168	Tak, 2014[39]	Resilience	170
Kim, 2021[16]	Grit, Job satisfaction	180	Ha, 2017[1]	Communicative competence, Teaching efficacy	198
Kim, 2016[12]	Child abuse awareness	336	Ha, 2015[15]	Psychological well-being	243
Mun, 2022[3]	Teaching flow, happiness	234	Han, 2014[40]	Professional recognition, happiness	420
Moon, 2021[32]	Teacher's self-esteem, Teacher-infant interaction	280	Han, 2019[41]	Job Stress, happiness	278
Park, 2015[33]	Teaching aptitude	299	Ham, 2020[18]	Servant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261
Byun, 2015[34]	Teacher efficacy, Job stress	280	Hwang, 2021[14]	Resilience	295
Yun, 2021[19]	Respect for children's rights, Teacher efficacy, Social support	172	Hwang, 2015[42]	Happiness	170
Chang, 2015[35]	Teacher efficacy, Job Stress	257			

### 3.2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효과크기

#### 3.2.1 전체효과크기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전체효과크기의 동질성 계수 값(Q)은 Table 3과 같이 1018.718( $p < .001$ )로 동질적이지 않고,  $I^2$ 의 값은 95.779로 큰 이질성을 나타내 연구 결과는 Random Model에 따른 효과크기 값을 살폈다. 따라서 전체효과크기 값은 0.504로 큰 효과크기이며, 이 값은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436, 상한값 0.566로 유의미하였다.

#### 3.2.2 요인군 별 효과크기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Table 4와 같이 모든 요인군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으며 개인심리정서특성(0.632)이 가장 큰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그다음 직무특성(0.450), 조직특성(0.353) 순으로 나타났다( $Q^b=10.439, p < .01$ ).

#### 3.2.3 개인심리정서특성 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

개인심리정서특성 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하위요인군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복수로 연구된 하위요인 가운데, 생활만족(삶의 질)(0.571), 행복감(0.682), 회복탄력성(0.611)이 큰효과크기를 나타냈다.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4.859, p > .05$ ).

#### 3.2.4 조직특성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

조직특성 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지지와 조직몰입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복수로 연 된 하위요인 가운데, 사회적지지(0.390)는 중간 과크기를 나타냈다.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1.251, p > .05$ ).

Table 2. Egger's Regression

Intercept	Standard error	Lower Limit	Upper Limit	t-value	df	P-value
2.767	3.743	-4.787	10.323	0.739	42	0.231

Table 3. Overall Effect Size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Fixed Model	44	0.495	0.482	0.509	1018.718	43	0.000	95.779
Random Model	44	0.504	0.436	0.566				

Table 4. Effect Size by Factor Group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Personal Psychological Emotion	14	0.632	0.537	0.711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5	0.353	0.125	0.545	10.439	2	0.005	95.779
Job Characteristics	25	0.450	0.360	0.532				

Table 5. Personal Psychological Emotion for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Grit	1	0.550	0.124	0.805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2	0.571	0.298	0.757			
Psychological well-being	1	0.790	0.525	0.915			
Depressed	1	0.460	0.007	0.757	4.859	6	0.562
Ego resilience	1	0.482	0.048	0.763			
Euphoria	6	0.682	0.560	0.775			
Resilience	2	0.611	0.348	0.784			

Table 6. Factors f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Colleague relationship	1	0.200	-0.173	0.523	1.251	3	0.741
Social support	2	0.390	0.141	0.593			
Servant leadership	1	0.320	-0.041	0.607			
Organizational commitment	1	0.450	0.112	0.695			

Table 7. Factors for Job Characteristic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Teacher-Infant Interaction	2	0.618	0.400	0.769	34.769	11	0.000
Teacher efficacy	3	0.445	0.230	0.618			
Immersion in teaching	1	0.790	0.571	0.904			
Teaching efficacy	2	0.650	0.444	0.791			
Teaching aptitude	1	0.730	0.471	0.873			
Rights Respect Childcare Practice	1	0.406	0.002	0.696			
Psychological burnout	2	0.264	-0.027	0.513			
Child abuse awareness	1	0.720	0.456	0.868			
Communication skills	1	0.412	0.012	0.698			
Professionalism	1	0.320	-0.081	0.632			
Job satisfaction	5	0.406	0.238	0.551			
Job stress	5	0.182	-0.003	0.354			

Table 8. Facilitator and inhibitor effect size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Facilitator	36	0.554	0.494	0.609	14.831	1	0.000
Inhibitor	8	0.239	0.068	0.396			

Table 9. Effect size by study target characteristic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Infant	2	0.552	0.205	0.776	0.746	2	0.689
Infant & Child	33	0.487	0.407	0.560			
Child	9	0.552	0.404	0.672			

Table 10. Effect size by scale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Cooper smith(1967)	8	0.617	0.480	0.725	9.102	4	0.059
Nathaniel branden(1994)	5	0.616	0.439	0.747			
Rosenberg(1965)	29	0.444	0.357	0.522			
Korea University Behavioral Science Research Institute(2000)	1	0.300	-0.238	0.697			
Kim(2012)	1	0.730	0.360	0.902			

### 3.2.5 직무특성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

직무특성 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적 소진, 전문성인식, 직무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다. 복수로 연구된 하위요인별 효과크기 차이는 교수효능감(0.650), 교사-영유아 상호작용(0.618), 교사효능감(0.445), 직무만족(0.406) 순으로 나타났다( $Q^2=34.769$ ,  $p<.001$ ).

### 3.2.6 촉진 및 억제요인 효과크기

촉진 및 억제요인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Table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요 하위요인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하였다. 하위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촉진요인(0.554)이 억제요인(0.239)보다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Q^2=14.831$ ,  $p<.001$ ).

## 3.3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조절요인 효과크기

### 3.3.1 연구대상 특성 별 효과크기

연구대상 특성 별 효과크기는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연구대상 특성 별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2=0.746$ ,  $p>.05$ ).

### 3.3.2 자아존중감 척도 별 효과크기

출판 특성 별 효과크기는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려대행동과학연구(2000)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95% 신뢰구간에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연구대상 특성 별 효과크기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2=9.102$ ,  $p>.05$ ).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 25편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개인심리정서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향요인의 전체효과크기가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은 선행된 연구 가운데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영향요인들 매우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냈음을 보여준다. 즉,

2005년부터 수행된 연구에서 제시된 자아존중감 영향요인들이 각각 효과성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매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요인군 별 효과크기에서 개인심리정서특성이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은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사 개인의 심리나 정서적인 면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심리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직무특성요인군의 하위요인 효과크기는 교수효능감,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복수의 연구에서 제시되어 비교 가능한 영향요인 가운데 교수효능감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은 비슷한 수준에서 큰효과크기를 나타냈으며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은 중간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먼저, 교수효능감이 가장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은 영유아 기관의 특수한 환경에서 교사가 교수 활동을 통해 영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 또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사와 영유아 간 원활한 상호작용 또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매우 효과적임을 본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따라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효능감 향상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높은 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의 일반적인 능력 외에 교사에게만 요구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성 신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31]. 이는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해 준다. 더불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이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영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반응적 상호작용, 촉진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가운데 촉진요인이 억제요인보다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억제요인인 우울, 심리적 소진,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선행 연구 가운데 제시된 촉진요인들에 비해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가 작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이 있어 억제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촉진요인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따라서 지금까지 선행된 촉진요인들 가운데 효과성이 높은 영향요인 즉, 개인심리정서요인군의 생활만족(삶의 질), 행복감, 회복탄력성과 직무특성요인군의 교수효능감, 교사-영유아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한 틀 안에서 종합하여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자료 선별에 대한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서 제시된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상관관계 계 값(r)이 제시된 연구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상관관계(r)값 외 분석 가능한 통계 값이 제시된 연구까지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이 조절요인인 연구대상과 연구 척도에 따라 어떠한 효과크기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며 분석 결과 두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조절요인에 따른 효과크기 차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사의 자아존중감 영향요인 간 효과크기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 복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비교 가능한 영향요인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추후 관련 연구들이 추가될 경우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하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 효과요인에 대한 분석연구가 선행되지 않아 본 연구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비교분석 할 수 없었다. 추후 비슷한 분석 연구가 누적된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 논의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J. H. Ha, Y. J. Kim, "The Relationship among Teaching Efficacy, Self-Esteem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Child Car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1, No. 4. pp. 27-49, 2017.  
<http://www.riss.kr/link?id=A104987856>
- [2] T. H. Son, "The Differences in Their Views on Teachers's Role between Child care Professors and Practitioner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5, No. 1. pp. 235-246, 2006.  
<http://www.riss.kr/link?id=A75461391>
- [3] D. S. Mun, H.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ing Flow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Le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23. pp. 559-570, 2022.  
<http://www.riss.kr/link?id=A108382731>
- [4] H. K. Jeon,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Ego-Resiliency and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20, No.3. pp. 101-124, 2016.  
<http://www.riss.kr/link?id=A102123966>
- [5] J. Y. Kim,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and Self-respect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3. pp. 699-712, 2021.
- [6]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7] B. M. Newman, P. R. Newman, "Development through life," The Dorsey Press, 1975.
- [8] J. V. Gilmore, "The productive personality," Albion-Pub Company, 1974.
- [9] P. R. Shim, "Self-leadership of childcare teachers effects on Interpersonal skill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Ph.D dissertation, Joongbu University, GyoYang, Korea, pp. 7-8, 2023.
- [10]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In T. A. Wills(Ed.), *Basic process in helping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1967.
- [11] M. S. Kim, "The Impact of Self-esteem on School Life Adjustmen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Ph.D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Yongin, Korea, pp. 132-134, 2021.
- [12] H. Y. Kim, H. S. Yoon, "Affect Self-esteem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hild Abuse Awar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No. 4. pp. 547-566, 2016.  
DOI: <http://dx.doi.org/10.22143/HSS21.7.4.28>
- [13] G. S. Oh,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Personality on Teacher-Children Inter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Ph.D dissertation, Hyupsung University, Hwaseong, Korea, pp. 60-66, 2018.
- [14] S. H. Yoon, "The Intermediate Effect of Personality andSelf-Resp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and Infants on Attachment Formation," Ph.D dissertation, Calvin University, Yongin, Korea,

- pp. 91-93, 2021.
- [15] J. E. Suh, "The research of child care teachers' teaching strategy, job stress, self-esteem and awareness of infant human right against infant challenging behaviors," Ph.D dissertation, Sh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p. 78-88, 2016.
- [16] S. K. Seo, "Their Related Factors of job satisfaction for the meta-analysis of the day care teache," Ph.D dissertation, Hyupsung University, Hwaseong, Korea, pp. 71-73, 2022.
- [17] D. S. Kim, "Meta-Regression Analysis on Early Childhood Teacher Burnout Variables : Focused on Protection Factors and Risk Factors," Ph.D dissertation, Hyupsung University, Hwaseong, Korea, pp. 42-43, 2019.
- [18] Y. H. Kwo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limate,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Childcare Teacher's Life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4, pp. 131-151, 2013.
- [19] Y. S. Hwang,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20, pp. 47-58, 2021.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1.21.20.47>
- [20] J. M. Ha, H. Ah. Seo, H. J. Han, S. R. Oh,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6, No. 2. pp. 487-513, 2015.  
<http://www.riss.kr/link?id=A100680780>
- [21] H. Y. Kim, "The Impact of Daycare Center Teachers' Grit and Self-resp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Level,"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Vol. 5, No. 5, pp. 880-886, 2021.  
<http://www.riss.kr/link?id=A107896674>
- [22] N. S. Kim,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Depression, Self Esteem and Collegiality on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3, pp. 127-142, 2019.  
<http://www.riss.kr/link?id=A106258809>
- [23] S. Y. Ham, C. J. Lee, "The effects of daycare center directors' servant leadership on teachers' self-esteem and an organizational commitment," Early child hood Education & Care, Vol. 15, No. 1, pp. 5-21, 2020.  
<http://www.riss.kr/link?id=A106633154>
- [24] S. Y. Yun, S. H. Kim, "A Study on the Variables Related to Child Abuse by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Safety Culture, Vol.-, No. 14, pp. 147-162, 2021.  
<http://www.riss.kr/link?id=A107973591>
- [25] J. Y. Kim,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and Self-respect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3, pp. 699-712, 2021.  
<http://www.riss.kr/link?id=A107782438>
- [26] P. Y. Kim, S. J. Cho, "The Effect on Self-Esteem according to job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Exhaustion of kindergarten teacher,"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Vol. 8, No. 2. pp. 169-177, 2015.  
<http://www.riss.kr/link?id=A101684177>
- [27] J. M. Kim1, J. A. Paik, "The Effect of Job Stress on Psychological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3. pp. 321-331, 2018.  
<http://www.riss.kr/link?id=A105235300>
- [28] S. D. Hwang, "Understanding of Meta-analysis of Knowledge-Sunning," Seoul: Hak-jisa, pp. 193-199, 2016.
- [29] S. k. Seo, "Meta-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of child care teachers," Ph.D dissertation, Hyupsung University, HwaSeong, Korea, pp. 71-73, 2019.
- [30]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88.
- [31] M. H Lee, "Variables associated with job performance of technology education teachers,"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pp. 185-191, 2006.
- [32] M. S. Moon, J. w. Park, "Teacher self-esteem and play teaching efficacy Influence on teacher-infant interac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Welfare, Vol. 24, No. 3. pp. 151-182, 2020.  
DOI: <https://doi.org/10.22590/ecee.2020.24.3.151>
- [33] S. H. Park, "Relationships among Aptitude for Teaching Profession,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2. pp.211-242, 2015.  
<http://www.riss.kr/link?id=A104839304>
- [34] K. E. Byun, O. C. Koyng,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6. pp. 3982-3990,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6.3982>
- [35] K. O. Chang, "Influencing Factors of Knowledge Related to Disease, Job Stress and Self-Esteem on Teacher Efficacy for Childcare Teach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325-833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325>
- [36] K. J. Chung, M. J. Kim, "The Influence of Kindergarten Teacher's Self-esteem on Job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8, No. 3. pp. 271-293, 2013.
- [37] E. J. Jung, H. I. Hwang,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of Infant-toddler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6,



No. 2. pp. 159-177, 2016.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6.2.201608.159>

- [38] S. Y. Cho, "Child 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1. pp. 359-373, 2005.
- [39] J. H. Tak, H. M. Kang,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4, No. 5. pp. 107-128, 2014.
- [40] J. H. Han,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8, No. 4. pp. 271-287, 2014.
- [41] H. S. Han, B. Y. Rhee,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Self-esteem and Job Stress on Their Feeling of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0, No. 1. pp. 1-16,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1.1>
- [42] H. I. Hwang, J. H. Tak, H. M.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s Happiness and Their Self-Esteem in High and Low Gratitude Group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9, No. 1. pp. 299-320, 2015.

---

문 동 규(Dong-Kyu Moon)

[정회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석사)
- 2007년 2월 : 국립목포대학교 레저스포츠과 (체육학박사)
- 2011년 2월 : 국립충북대학교 아동복지과 (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영유아교육, 사회복지, 여가문화